

##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parenting Scale for Mother (CS-M)

전선영<sup>1</sup> 이희선<sup>2</sup>

Sun young Jeon<sup>1</sup> Hee sun Lee<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coparenting scales(mother's version)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Methods:** In this study, mothers with one or more children were targeted. First,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were verified( $N=412$ ), and second, cross-validation and concurrent validity were verified( $N=312$ ).

**Results:** The coparenting scale(mother's version) is largely composed of the mother's own coparenting and their spouse's coparenting. First, as a result of perform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mother's own coparenting and their spouse's coparenting, and they were labeled parenting cooperation, parenting agreement, and parenting sharing.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13 items were identified with three factors. Second, cross-validation was performed on a new group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s a result, validity was secured by satisfying the model validation criteria.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isting scale and parenting efficacy was significant, thus securing concurrent validity.

**Conclusion/Implications:** Through this study, the coparenting scale(mother's version) that was developed may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family coparenting by identifying mothers' perceptions of coparenting, and can be used in parent education and child-rearing policies.

\* 본 논문은 2021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sup>1</sup> 제1저자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

#### <sup>2</sup>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e-mail : hslee@gachon.ac.kr)

■ **key words** development of coparenting scale, validation of coparenting scale, mother's version, early childhood

## I. 서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 일·가정 양립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양육 모델인 부모공동양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양육 책임이 어머니에게 치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젊은 세대의 부모는 부모역할에 장점을 찾고 자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녀 양육을 부모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려 한다(박선진, 강민주, 2020; 이은수, 2020). 또한

현대의 가족가치관이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율과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불평등 요소들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부모공동양육의 욕구가 높다(김재희 등, 2018; 조운진, 2017).

그러나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부부 간 일치된 공동양육의 정도는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취학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관심과 의지가 높으나 양육 참여 시간이나 정도는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을 때, 2.92점과 2.98점으로 낮게 나타나 공동양육의 인식과 실재는 차이를 보였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9). 특히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머니들은 가정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고 여전히 자녀 양육의 주 담당이 어머니에게 있다 보니 불공정한 남녀 역할로 양육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조숙인, 2021).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녀를 돌본 사람의 89.8%가 어머니였고, 이로 인해 어머니는 양육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었다(김은하, 김지수, 2021). 사회적으로 가정 내 돌봄의 양성화를 주장하지만, 양육은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로만 여겨지며 자녀 양육이 부모가 상호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아버지와 함께 하는 양육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김나연, 2013, 진경선, 김고은, 2020). 이와 같은 상황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주 양육자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함으로 인해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말해준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은경 등, 2019; Kotila, Schoppe-Sullivan, & Kamp Dush, 2013). 따라서 한국의 특수한 맥락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부모공동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과 지각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공동양육은 부부가 부모로서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신념, 가치, 참여, 사고, 정서 등을 공유하고, 파트너로서 양육 행동을 심리적으로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Feinberg, 2003; Mchale, 1995, 1997). 즉, 부모공동양육은 단순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독려 차원이 아닌 부부가 부모 역할에 서로 협력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 및 분담하여 양육을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은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시작된 이후 가족 해체의 예방적 차원과 양육의 다양한 연구를 위해 일반 가정에 적용되면서 확대되었다(Belsky et al., 1995).

국내 부모공동양육의 초기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을 자녀 돌봄의 측면으로 보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강조하였다(이영환, 2008). 즉 공동양육의 파트너로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여 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서구 문화의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을 적용하여 양육과 자녀 발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내 선행연구의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미국, 유럽 등 서구 문화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국외 척도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타당도 검증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아 척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강수경 등, 2019; 금주희, 양연숙, 2017; 김문정, 2016; 김수진, 도현심, 2001; 김재원, 남은영, 2018; 이경선, 2017; 장미연, 최미경, 2015). 또한 몇몇 요인은 신뢰도가 낮아 문항을 삭제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요인을 합치거나 제거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의 맥락적인 특성의 부모공동양육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김은수, 김혜순, 2019; 김종훈, 2018; 이미나 등, 2016; 조규영 등, 2019; 한영숙, 2019; 한지현, 2018). 따라서 한국의 양육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양육 협력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으며 ‘양육 동맹’, ‘양육 파트너십’, ‘공유된 양육’ 등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부모공동양육의 측정은 자기보고 방식(Beckmeyer et al., 2017; Dyer et al., 2018; Feinberg et al., 2012; Knold & Abidin, 2001; Margolin et al., 2001; McDaniel et al., 2017; McHale, 1997; Stright & Bales, 2003; Teubert & Pinquart, 2011; Van Egeren & Hawkins, 2004)과 관찰(McConnell & Kerig, 2002; McHale et al., 2000)을 통해 각 가정의 부모공동양육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문지 방식이 대부분이며 특정 기간을 두고 매일 체크하여 합산하는 방식, 관찰된 내용을 코딩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저소득층 아버지, 이혼한 부모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영유아 자녀의 부모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대방의 부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자녀가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하는 도구도 있었다. 측정 도구의 요인과 내용 범주는 크게 부모가 함께 하는 양육 특성(지원, 공유, 협력, 팀워크, 연대, 일치, 동맹, 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분배 등), 부모 사이의 양육으로 인한 관계적 특성(상호존중, 화합, 가족통합, 비난, 갈등, 훼손, 지지, 친밀, 만족 등)을 내포하고 개인의 양육 정도(훈육, 문지기 등),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측정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부모공동양육의 특성을 재탐색하고 한국의 맥락적 양육 특성을 반영한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부모의 인식과 실제 양육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부모공동양육의 인식보다 양육의 실제에 초점을 두고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공동양육은 부모가 함께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3인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부모 각자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2인 관계의 양육과는 차별화되어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적이고 협력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증가시키고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미나 등, 2016; Adler-Baeder et al., 2018; Altenburger et al., 2017). 또한 부모공동양육은 부모 자신의 양육 관련 특성과 결혼생활의 질 등과도 관련 있어 지원적이고 협력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양육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혼생활의 질이 낮더라도 부모공동양육이 긍정적이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상쇄한다(강수경 등, 2019; 금주희, 양연숙, 2017; 조규영 등, 2019; Favez et al., 2019). 이렇듯 부모공동양육은 자녀 발달, 부모 개인의 양육 행동과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생애 초기의 영유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시기이면서 부모가 협력하여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부모공동양육이 요구되는 시기이다(Shaffer & Kipp, 2013). 자녀가 영유아기에 경험한 부모공동양육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후속 발달의 결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므로 자녀의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하다(Umemura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공동양육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바와 같이, 기존의 부모공동양육은 연구마다 적용하는 개념이 다르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가 부족하다. 또한 오늘날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관심

과 인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양육으로 이어지는지는 측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한국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특수한 양육상황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맥락적 특성에서의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양육으로 드러나는 부모공동양육에 대해 측정할 수 있도록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공동양육의 정의와 요인의 구성을 조사하여 한국 사회문화에 적합한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한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구성 개념과 문항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어머니 총 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726명 중 412명의 자료는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을 위한 요인 분석에 사용하였고, 314명의 자료는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12세( $SD = 3.96$ )이다. 요인분석에 참여한 412명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평균 37.48세( $SD = 4.11$ )로 만 25세에서 만 48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 분석에 참여한 어머니 314명의 연령은 평균 36.77세( $SD = 3.83$ )로 만 28세에서 만 4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표 1 참조).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자신의 부모공동양육(13문항),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13문항)으로 각각 양육협력, 양육일치, 양육분담의 3요인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협력(Parenting cooperation)은 4문항으로 부모가 서로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예: 나(배우자)는 자녀가 배우자(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한다 등). 양육일치(Parenting agreement)는 5문항으로 부모가 서로 합의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자녀를 지도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예: 나(배우자)는 자녀의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 배우자(나)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한다 등). 양육분담

(Parenting sharing)은 4문항으로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부모의 역할 및 양육과 관련한 일을 분담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예: 나(배우자)는 부모 역할을 배우자(나)와 분담한다 등).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공동양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 계수는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89,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93으로 전체 문항 .95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상세한 설명은 연구결과 표 7에 제시하였다.

2) 공동양육관계

공동양육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Feinberg 등(2012)이 개발한 Coparenting Relationships Scale(이하 CRS)를 번역 및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공동양육관계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우자 양육지지는 7문항으로 배우자의 양육 행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예 :나는 배우자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등). 공동양육 일치는 3문항으로 양육관의 일치에 관한 것이다(예: 나와 배우자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 공동양육 지원은 6문항으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모로서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예: 배우자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등). 공동양육 훼손은 6문항으로 배우자의 양육 행동을 손상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예: 배우자는 때때로 내가 부모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농담 식의 장난이나 비꼬는 말을 한다 등). 공동양육 친밀은 4문항으로 공동양육이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는지에 관한 것이다(예: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자녀를 갖기 전보다 더 단단하다 등). 갈등 노출은 5문항으로 자녀를 갈등에 노출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예: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나와 배우자는 서로에게 날카롭거나 비꼬는 행동을 한다 등). 노동 분배는 2문항으로 양육을 공평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예: 배우자는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는다 등).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양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 계수는 배우자 양육지지 .77, 공동양육 일치 .80, 공동양육 지원 .89, 공동양육 훼손 .82, 공동양육 친밀 .74, 갈등 노출 .92, 노동 분배 .76, 전체 .95로 확인되었다.

표 1.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	내용	전체 (N=726)	연구대상 1 (N=412)	연구대상 2 (N=314)	변인	내용	전체 (N=726)	연구대상 1 (N=412)	연구대상 2 (N=314)
연령	20대	14(1.9)	10(2.4)	4(1.3)	자녀 수	1명	264(36.4)	148(36.0)	115(36.6)
	30대	515(71.0)	274(66.8)	241(76.8)		2명	389(53.6)	223(54.3)	167(53.2)
	40대	192(26.4)	126(30.7)	66(21.0)		3명 이상	72(9.9)	39(9.5)	31(9.9)
	결측값	5(0.7)	2(0.1)	3(1.0)		결측값	1(0.1)	1(0.2)	1(0.3)
교육 수준	고졸	33(4.5)	14(3.4)	19(6.1)	월 소득	300만원 이하	24(3.3)	9(2.2)	15(4.8)
	전문대 졸	156(21.5)	76(18.4)	81(25.8)		300-500만원 미만	129(17.8)	55(13.3)	75(23.9)
	4년제 졸	422(58.1)	241(58.5)	180(57.3)					

표 1. 계속

변인	내용	전체 (N=726)	연구대상 1 (N=412)	연구대상 2 (N=314)	변인	내용	전체 (N=726)	연구대상 1 (N=412)	연구대상 2 (N=314)
교육 수준	대학원 이상	110(15.1)	77(18.7)	33(10.5)	월 소득	500-700만원 미만	191(26.3)	82(19.9)	108(34.4)
	결측값	5(0.7)	4(1.0)	1(0.3)		700만원 이상	182(25.1)	104(25.3)	78(24.8)
직업	전업주부	203(28.0)	115(28.2)	89(28.3)	영아 자녀 출생 순위	첫째	544(77.5)	306(74.5)	238(80.4)
	시간제	83(11.4)	51(12.5)	32(10.2)		둘째	148(15.5)	87(21.3)	61(19.6)
	전일제	345(47.5)	189(46.3)	155(49.4)		셋째	29(4)	17(4.1)	12(3.9)
	휴직	90(12.4)	53(13.0)	37(11.8)					
맞벌이 유무	결측값	5(0.7)	4(1.0)	1(0.3)					
	외벌이 (휴직 포함)	294(40.4)	131(31.8)	126(40.1)					
	맞벌이	428(58.9)	278(67.5)	187(59.5)					
	결측값	4(0.6)	3(0.7)	1(0.3)					

주1. 연구대상 1 : 요인분석에 사용된 어머니 자료  
 주2. 연구대상 2 : 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어머니 자료

### 3)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Johnston과 Mash(1989)가 개발한 양육효능감을 수정·보완하여 타당화 검사를 마친 김정미 등(2014)의 양육효능감(K-PSOC)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은 2요인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능감은 8문항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바람직하게 해낼 수 있다는 부모 스스로의 판단과 확신 정도를 나타낸다(예: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등). 안정감은 7문항으로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안정감의 정도를 나타낸다(예: 나는 때때로 부모로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등)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유능감 .89, 안정감 .87, 전체 .95로 확인되었다.

## 3. 연구절차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을 위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표 2 참조). 먼저, 1단계는 부모공동양육을 키워드로 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예: RISS, EBSCO, Google scholar, APA PsycNet 등)에 있는 약 267편(2020년 기준)의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구성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약 3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Beckmeyer et al., 2017; Dyer et al., 2018; Feinberg et al., 2012; Knold & Abidin, 2001; Margolin et al., 2001; McDaniel et al., 2017; McHale, 1997; Stright & Bales, 2003; Teubert & Pinquart, 2011; Van Egeren

표 2.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절차

단계	구분	목적	방법 및 대상	내용 및 비고
1단계	문헌조사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이론적, 잠재적 구성요소 파악	국내외 부모공동양육 관련 문헌과 척도분석 (33개 요인의 96문항)	○문헌탐색에 의한 구성요소 추출 - 상호존중, 지원, 양육공유, 화합, 배우자 협력, 배우자 신뢰, 소통, 팀워크, 존중, 가족통합, 비난, 갈등, 훈육, 경쟁, 언어적 다툼, 따뜻함, 자녀 중심적, 부모-자녀 상호작용, 협력, 삼각측량, 연대, 훼손, 공유, 공동양육 만족, 지지, 갈등노출, 노동의 분배, 친밀, 일치, 문지기, 동맹, 긍정적 공동양육, 부정적 공동양육 등
	예비조사	잠재구인과 예비문항 구성	영유아 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 (부모 각 4인)	○인터뷰에 의한 구성요소 추출 - 일상 돌봄, 양육의견 공유, 육아와 가사 분담, 부모 역할 분담, 일관된 양육, 자녀와 놀이, 협력, 일관성 있는 훈육 등
2단계	내용 타당도 검증	잠재구인과 예비문항의 적절성 검증	1차 내용타당도 검증	○부모공동양육 행동 특성 추출 - 지원, 공유, 일치, 분담 등의 양육 특성 문항추출
			2차 내용타당도 검증(30문항)	○전문가 15인(교육관련 교수 6인, 박사 5인, 부모 상담사 2인, 부모 2인) 참여 ○예비구인(양육지원, 양육공유, 양육일치, 양육분담) 및 예비문항 적절성 검증 ○평정방법 논의
	사전조사	척도문항의 이해도와 적절성 검증	어머니 4인	○문항 이해도 및 반응분석 - 문항의 이해도 평균 4.5 -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30문항씩 최종 예비문항 확정
3단계	본조사	척도 개발용 연구 표집	어머니(4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척도 개발 -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구인 추출 - 양육협력, 양육일치, 양육분담 3요인 -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13문항씩 추출
		타당화 검증용 연구 표집	어머니(3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교차타당도 검증 ○구인타당도 검증

& Hawkins; 2004). 추출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중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은 추려내서 1차 문항인 96문항을 추출하였다. 1차로 구성된 96문항에 대해서 영유아 자녀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포커스그룹을 통해 49문항으로 추출하였다. 문항에 대한 범주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에 초점을 두고자 부부관계에 가까운 의미의 문항은 삭제하고 부모 인식과 양육의 실제 행동을 구분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공동양육 행동 특성별로 유사한 의미나 부정적 요인은 긍정적 요인으로 묶어 훈육, 일치하는 일치의 의미로 분류하였고, 존중, 지원, 지지, 비난, 훼손, 갈등은 지원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부모공동양육 특성의 범주는 크게 지원, 공유, 일치, 분담으로 나뉘어 분류하였다.

2단계는 내용타당도 검증 단계로 잠재구인과 예비문항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적절성을 검증하고 평정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비구인별로 ‘나는 ~ 한다.’, ‘배우자는 ~한

다.’등 문항의 내용이 상이하게 포함되어 있고, 요인에 대한 자신과 배우자의 문항 비율이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부모공동양육을 같은 문항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문항의 비율을 균등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양육의 특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잠재적 구성요인을 양육지원, 양육공유, 양육일치, 양육분담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해석이 어색한 문항, 경쟁과 갈등에 관한 문항, 전형적인 부모의 성역할이 드러나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예비문항 30문항이 구성되었다 (표 3 참조).

표 3.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예비문항

문항번호	부모공동양육 예비문항 내용
I1(P1)	나(배우자)는 배우자(내)가 자녀에 대해 내린 결정을 동의한다.
I2(P2)	나(배우자)는 배우자(내)가 부모 역할로 힘들어할 때 위로해준다.
I3(P3)	나(배우자)는 배우자(나)에게 자녀 돌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I4(P4)	나(배우자)는 자녀가 배우자(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한다. -예: 아빠(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I5(P5)	나(배우자)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자(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I6(P6)	나(배우자)는 배우자(나)의 자녀 양육방식을 존중해준다.
I7(P7)	나(배우자)는 배우자(나)에게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준다.
I8(P8)	나(배우자)는 배우자(내)가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공감해준다.
I9(P9)	나(배우자)는 배우자(내)가 양육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에 맞게 도와준다.
I10(P10)	나(배우자)는 배우자(내)가 자녀 양육을 어려워할 때, 방법을 알려주어 도와준다.
I11(P11)	나(배우자)는 배우자(나)의 양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예: 화난 표정 짓기, 무시하기, 지적하기, 언성 높이기 등-
I12(P12)	나(배우자)는 배우자(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훈육을 반대하거나 제한한다.
I13(P13)	나(배우자)는 배우자(나)와 갈등이 있더라도 자녀 양육에는 협력한다.
I14(P14)	나(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배우자(나)와 공유한다.
I15(P15)	나(배우자)는 자녀에게 최선의 양육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배우자(나)와 협의한다.
I16(P16)	나(배우자)는 자녀의 문제 발생 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나)와 협조한다.
I17(P17)	나(배우자)는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찾아 배우자(나)와 공유한다.
I18(P18)	나(배우자)는 일관된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나)와 자주 의논한다.
I19(P19)	나(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배우자(나)와 의논하여 지출한다. -놀이감, 교육, 문화체험 비용 등-
I20(P20)	나(배우자)는 자녀의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 배우자(나)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식생활, 수면시간, 위생 등-
I21(P21)	나(배우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배우자(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양육한다. -예: 교육 방향, 성장 목표 등-
I22(P22)	나(배우자)는 자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나)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등-
I23(P23)	나(배우자)는 자녀의 충동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배우자(나)와 합의된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스마트폰 사용 허용 여부 등-
I24(P24)	나(배우자)는 배우자(나)와 합의된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한다.



표 3. 계속

문항번호	부모공동양육 예비문항 내용
I25(P25)	나(배우자)는 배우자(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을 담당한다.
I26(P26)	나(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을 배우자(나)와 분담한다. -예: 식사 챙기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등-
I27(P27)	나(배우자)는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우자(내)가 해줄 수 없을 때, 대신해준다.
I28(P28)	나(배우자)는 육아와 가사를 배우자(나)와 분담한다. -예: 배우자(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나(배우자)는 집안일을 한다.-
I29(P29)	나(배우자)는 부모 역할을 배우자(나)와 분담한다. -예: 자녀의 놀이, 교육 관련 참여 등에서의 부모 역할 분담 등-
I30(P30)	나(배우자)는 양육을 공정하게 분담한다.

주. I :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P) :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3단계는 본조사 단계로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2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진행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8개 시군구의 21개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한 1149부 중 수집된 표본은 740부(회수율 65%)였으며,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값이 50% 이상으로 분석이 어려운 14부를 제외한 726부(응답률 64%)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 검증용 자료로 412부, 교차타당도와 공인타당도 검증 자료 314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IBM Co., Armonk, NY),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조사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위한 왜도와 첨도 등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1의 표본으로 척도 개발의 요인구조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누적분산비율과 고유치, 스크리도표, 문항의 공통성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축요인추출, 직접 오블리민(Oblimin)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관계수 및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산출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2의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2.0을 사용하여 양육과 관련이 있는 변인인 양육효능감과 개발한 어머니의 척도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항의 평균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척도개발

##### 1) 탐색적 요인분석

분석에 앞서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경향성을 살펴보았는데, 문항의 평균은 최소값 3.27, 최대값 4.47이고, 문항의 표준편차가 .51~1.10로 극단적인 값을 보이거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값을 보이지 않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왜도는 -.17~-1.14 사이, 첨도는 -.01~2.23 사이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값을 보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어머니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30문항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3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먼저,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KMO 지수를 확인하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30문항의 KMO 지수는 .933,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p < .001$ 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30문항의 KMO 지수는 .956,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p < .001$ 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 스크리도표 검정,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요인의 수를 고정하지 않고 요인구조를 파악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관련 문항은 모두 3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크리도표에서 고유치가 평균화에 이르기 직전인 지점을 고려하여 결정된 요인 수로 설명하는 분산 비율이 전체 설명량의 최소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부합하는 결과이다(Merenda, 1997).

다음으로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3요인 구조의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항인지 분석하였고,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각각의 문항을 비교하여 동일하게 포함된 문항을 선별하였다. 공통성이 .40 이상인 문항과 요인 적재치가 .40 이상인 문항, 다른 변인에 .32 이상 중복하여 적재되지 않고 교차 요인부하량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Reid et al., 2015). 구체적으로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 I25(P25), I27(P27), I13(P13), I11(P11), I12(P12)가 삭제되었다. 또한 요인적재치가 .40 미만이거나 교차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적은 문항 I2(P2), I6(P6), I7(P7), I8(P8), I9(P9), I15(P15), I18(P18)가 삭제되었다. 추가로 하위 구성 개념에 기초하여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거나 요인적재치가 교차되어 나타난 문항 I1(P1), I17(P17), I3(P3), I19(P19)가 삭제되었다. 이로써 해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탐색된 13문항이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에서 각각 추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3요인일 때, 누적분산비율은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64.90%,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69.5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성된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공동양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인은 잠재적 구인요인의 양육지원과 양육공유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양육협력’이라 새롭게 명명하였다. 자녀에 대한 서로의 양육을 지원하고 공유하여 협력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요인은 자신과 배우자가 일치된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일관성 정도

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양육일치’로 명명하였다. 3 요인은 자신과 배우자가 양육을 분담한 정도가 적절한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양육분담’으로 명명하였다. 이로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에서 양육협력(4문항), 양육일치(5문항), 양육분담(4문항)으로 13문항씩 구성되었다(표 4참조).

표 4.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N = 412)

구성요소	문항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1요인	2요인	3요인	1요인	2요인	3요인
양육협력	I 4(P 4)	.73			.84		
	I 5(P 5)	.72			.78		
	I14(P14)	.80			.66		
	I16(P16)	.75			.65		
양육일치	I20(P20)		.84			.73	
	I21(P21)		.83			.76	
	I22(P22)		.78			.81	
	I23(P23)		.72			.77	
	I24(P24)		.67			.59	
양육분담	I26(P26)			.79			.85
	I28(P28)			.84			.87
	I29(P29)			.78			.74
	I30(P30)			.86			.84
고유값		6.47	1.87	1.40	7.81	1.50	1.12
설명 변량(%)		43.11	12.47	9.32	52.04	10.01	7.45
누적 변량(%)		43.11	55.58	64.90	52.04	62.05	69.50

주. I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P)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 2. 타당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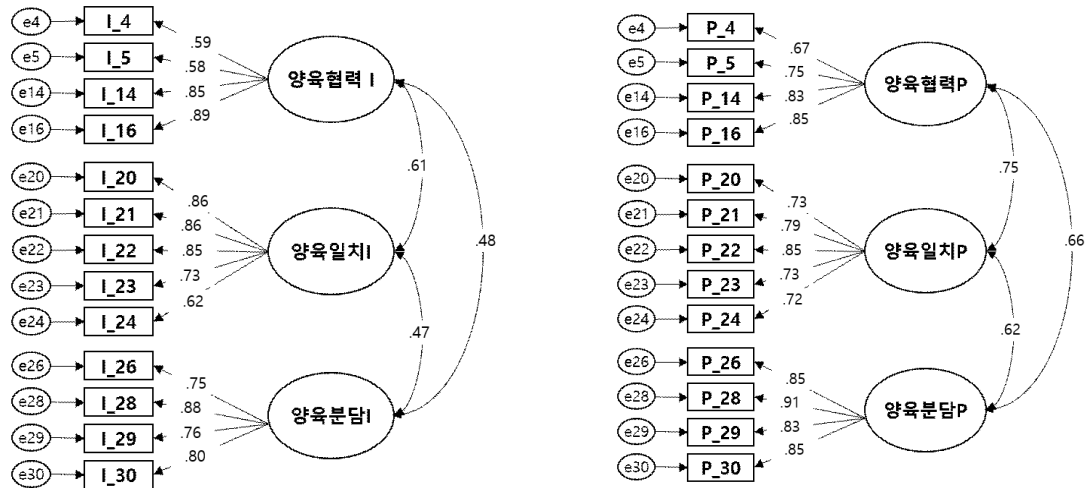
### 1) 구인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통해 추출된 최종문항에 대해 3요인 구조의 적합성과 이론적 개념화가 실증적 타당성을 지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는 CFI와 TLI값이 .90이상이어야 하며,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값이 <1, SRMR이 .08이하일 때 보통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Hu & Bentler, 1999),  $\chi^2$ 값을 df로 나눈 값이 최대 5이하로 나타난 값은 기준치를 충족한다(Carmines & McIver, 1981).

각각의 최종 13문항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자신의 부모공동양육에서  $\chi^2 = 286.703(62)(p < .001)$ , RMSEA는 .094, SRMR는 .060, CFI는 .927, TLI는 .909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에서  $\chi^2 = 288.646(62)(p < .001)$ , RMSEA는 .094, SRMR는 .051, CFI는 .937, TLI는 .904로 나타나 3요인 구조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증에 앞서, 최종 척도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부모공동양육은 양육협력, 양육일치, 양육분담의 하위영역간  $rs = .43\sim.55$ 로

유의한 정적 상관( $p < .001$ )을 보였고,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은 양육협력, 양육일치, 양육분담의 하위영역간  $r_s = .57 \sim .66$ 로 유의한 정적 상관( $p < .001$ )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의 상관관계는  $r_s = .61 \sim .84$ 로 유의한 정적 상관( $p < .001$ )을 보였다(그림 1 참조).



(I)자신의 부모공동양육, (P)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계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CR),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AVE)값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CR)는 .70이상, 분산추출지수(AVE)는 .50이상이면 만족스러운 만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낸다(노경섭, 2019).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개념신뢰도(CR)는 .87~.92로 나타났고, 분산추출지수(AVE)는 .62~.73으로 나타나 각 항목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요인별 평균 분산추출지수가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고, 요인별로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1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로써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각 요인 간 독립된 개념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5 참조).

표 5.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1	2	CR	AVE	1	2	CR	AVE	
양육 협력	1		.91	.73	양육 협력	1		.90	.70
양육 일치	.36 (.31~.42)	1	.92	.70	양육 일치	.56 (.48~.60)	1	.90	.64
양육 분담	.23 (.17~.30)	.22 (.15~.29)	.87	.62	양육 분담	.38 (.30~.47)	.43 (.34~.52)	.91	.72

주. 판별타당도 : 평균분산추출(AVE) 값 > 상관계수<sup>2</sup>, (상관계수±2 ×표준오차) ≠

2) 교차타당도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요인구조가 표본에 종속한 모형인지 아니면 다른 표본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상에게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인지 확인한 결과, 왜도 -1.01~-.21였고 첨도 2.45~.27로 산출되어 정규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연구대상 2(N= 314)의 준거집단을 대상으로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고 카이제곱 통계량과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06.080(62)(p < .001)$ , CFI = .921, TLI = .901, RMSEA = .101(90% 신뢰수준 C. I.[.089, .114])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49.546(62)(p < .001)$ , CFI = .937, TLI = .920, RMSEA = .098(90% 신뢰수준 C. I.[.083, .105])로 나타났다. 이로써 새로운 대상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한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3요인 모형의 교차타당도가 검증되었다.

3)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는 연구자가 정의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가 다른 준거 변수와 얼마나 상응하느냐의 정도를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의 척도 개발을 위해 참고하였던 공동양육관계와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양육효능감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은 준거 척도인 공동양육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rs = .56\sim.80, p < .001$ )을 보였고 양육효능감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rs = .17\sim.37$ )을 보였다. 이로써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공인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표 6. 개발한 부모공동양육과 준거 척도(CRS)의 상관관계 (N = 314)

측정변인	자신의 부모공동양육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			전체
	양육 협력	양육 일치	양육 분담	양육 협력	양육 일치	양육 분담	
공동양육관계	.62***	.55***	.62***	.71***	.67***	.69***	.80***
양육효능감	.35**	.35**	.23**	.32**	.37**	.17**	.37**

\*\*p < .01, \*\*\*p < .001

3. 최종 문항 및 신뢰도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와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신뢰도는 .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부모공동양육은 전체 .89, 양육협력 .82, 양육일치 .88, 양육분담 .88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은 전체 .93, 양육협력 .86, 양육일치 .87, 양육분담 .92으로 나타나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자신의 부모공동양육에서 양육협력 4.37(SD = .68), 양육일치 3.87(SD = .81), 양육분담 3.59(SD =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부모공동양육에서 양육협력 4.08(SD

= .81), 양육일치 3.73( $SD = .88$ ), 양육분담 3.55( $SD = 1.05$ )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부모공동양육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최종 문항 및 신뢰도

구성요인 (신뢰도)	M (SD)	번호	문항내용
자신의 부모 공동 양육 (.89)	양육 협력 (.82)	1	나는 자녀가 배우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한다. -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2	나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3	나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배우자와 공유한다.
		4	나는 자녀의 문제 발생 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와 협조한다.
	양육 일치 (.88)	5	나는 자녀의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 배우자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식생활, 수면시간, 위생 등-
		6	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배우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양육한다. -예: 교육 방향, 성장 목표 등-
		7	나는 자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등-
		8	나는 자녀의 충동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된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스마트폰 사용 허용 여부 등-
		9	나는 배우자와 합의된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한다.
	양육 분담 (.88)	10	나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을 배우자와 분담한다. -예: 식사 챙기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등-
		11	나는 육아와 가사를 배우자와 분담한다. -예: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배우자는 집안일을 한다.-
		12	나는 부모 역할을 배우자와 분담한다. -예: 자녀의 놀이, 교육 관련 참여 등에서의 부모 역할 분담 등-
		13	나는 양육을 공정하게 분담한다.
배우자 부모 공동 양육 (.93)	양육 협력 (.86)	1	배우자는 자녀가 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한다. -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2	배우자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3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나와 공유한다.
		4	배우자는 자녀의 문제 발생 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 협조한다.
	양육 일치 (.87)	5	배우자는 자녀의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 나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식생활, 수면시간, 위생 등-
		6	배우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양육한다. -예: 교육 방향, 성장목표 등-
		7	배우자는 자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나와 같은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등-
		8	배우자는 자녀의 충동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나와 합의된 기준으로 양육한다. -예: 스마트폰 사용 허용 여부 등-
		9	배우자는 나와 합의된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한다.
	양육 분담 (.92)	10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을 나와 분담한다. -예: 식사 챙기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등-
		11	배우자는 육아와 가사를 나와 분담한다. -예: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나는 집안일을 한다.-
		12	배우자는 부모 역할을 나와 분담한다. -예: 자녀의 놀이, 교육 관련 참여 등에서의 부모 역할 분담 등-
		13	배우자는 양육을 공정하게 분담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특히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가지 표본으로 연구대상자를 다르게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공동양육의 구성개념과 그에 따른 문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예비문항은 크게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을 평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평가하더라도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으로 나누어 각각 3요인씩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에서 동일하게 ‘양육협력’ 4문항, ‘양육일치’ 5문항, ‘양육분담’ 4문항 총 3요인 13 문항씩 확정하였다. 이는 척도 개발에 요인별 최소 3문항 이상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만족하는 결과이다(우종필, 2016). 특히 개발한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한국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그 문항이 척도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척도와 달리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성된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어머니가 부모공동양육에 대해 인식한 ‘양육협력’의 영역은 자신과 배우자가 서로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자녀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협조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추출 과정에서 잠재적 요인으로 지원과 공유를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나 최종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기존 척도(McHale, 1997; Van Eggen & Hawkins, 2004)에서는 비슷한 문항이 가족통합, 지원, 공유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지원과 공유 요인이 상관관계가 높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한 Marrifield(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서로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양육협력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부모공동양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일치’ 요인은 자신과 배우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 전반의 과정에서 자녀에게 일관되게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양육일치’ 요인에는 자녀에 대한 초기 반응부터 기본생활습관 형성, 자녀 발달의 기대 및 지원, 자녀 양육의 장기적 목표 등에 관한 부모의 일치된 양육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치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성 있는 양육은 자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김종훈, 2018; 하수경, 김원중, 2011). 이혼 가정의 공동양육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이 서로 일치할수록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보이는 것을 볼 때, 부모공동양육에서 양육일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Maccoby et al., 1990). 특히 본 연구에서 훈육에 대한 내용이 양육일치에 포함된 것은 기존의 공동양육 척도를 사용한 연구(전선영, 이희선, 2020; 조규영 등 2019; 한영숙, 2019; McHale, 1997)와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훈육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적용하였으나 신뢰도가 낮아 분석 시 제외되었고, 내용은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배우자보다는 내가 한다’, ‘배우자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등으로 구성되어 부모의 문지기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의 주요 개념을 ‘일관된 양육’과 ‘일관성 있는 훈육’으로 인식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훈육을 일관성 있는 양육 일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문지기 역할에 초점을 둔 ‘나는 배우자가 자녀를 훈육할 때, 훈육을 반대하거나 제한한다.’의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는 배우자와 합의된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한다.’의 일관성 있는 훈육에 관한 문항은 부모공동양육에 포함되었다. 한국의 어머니는 부모공동양육 시 부모의 일치된 기준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공동양육은 부모 간 규칙을 만들고 일치된 양육을 통해 일관되게 자녀를 지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양육분담’ 요인은 양육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자녀의 일상적 돌봄, 양육에서의 놀이, 교육 관련한 참여에 대해 합의하여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양육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이 포함된다. 양육분담은 자녀 양육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의 측면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이영환 등, 2009). 그러나 부모공동양육은 양육에 관한 책임과 에너지를 배우자와 나누고 기능적으로 협업하는지에 대한 상호 합의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Feinberg et al., 2012), 양육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부모가 역할 분담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중요하다(조숙인, 2021; Belsky & Hsieh, 1998).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척도는 시간이나 비율적인 측면에서 문항을 구성하지 않고 각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역량을 고려한 상호 합의에 따른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그 문항들이 양육분담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척도(Feinberg et al., 2012)에는 ‘배우자는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는다’의 문항이 양육분담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발한 척도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인 자녀의 일상 돌봄, 육아와 가사 분담 등이 문항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나(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을 배우자(나)와 분담한다. -예: 식사 챙기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등’, ‘나(배우자)는 육아와 가사를 배우자(나)와 분담한다.’ 등의 문항이 양육분담으로 포함되었다. 서구 문화에서는 자녀의 일상적 돌봄, 육아와 가사 분담이 부모의 성역할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함께 분담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여(이영환 등, 2009) 기존 척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어머니가 기본적인 보살핌, 육아와 가사 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부모공동양육의 양육분담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와 다른 문화적 차이를 보였고 이는 한국 양육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문항은 신념이나 감정적 교류에 기초한 심리적 표현보다는 부모의 실제적인 양육 특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공동양육 척도에서는 ‘아내와 나는 아이에 대해 내린 각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내 배우자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부모라고 느끼게 해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McHale, 1997; Feinberg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요인 구성과정에서 ‘-존중한다’, ‘-격려한다’, ‘-공감한다’, ‘-위로한다’ 등의 심리·정서적 차원의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지원해준다’, ‘-공유한다’, ‘-협조한다’, ‘-양육한다’, ‘-분담한다’ 등의 문항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어머니가 부모공동양육을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측면의 표현과 인식이 아닌 실제 양육에서 보이는 행동을 부모공동양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어머니는 실제 양육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바탕으로 부모공동양육을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어머니가 느끼는 불평등적 양육 참여를 해소하고 가정 내 양성평등적인 부모공동양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지원과 의식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 공유를 통한 일치, 그에 따른 분담이 드러나는 실제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양육에서 나타나는 협력과 일치, 분담의 부모공동양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양육의 실천 영역에 가깝게 구성되었으며 한국 부모의 부모공동양육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척도와 차별화되어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의 맥락적 특성을 반영한 척도로 사료된다.

두 번째,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요인이 부모공동양육을 잘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각 요인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위요인 간 모두 정적 상관을 보여 자신의 부모공동양육과 배우자의 부모공동양육이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공동양육이라는 상위개념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각 하위요인의 점수를 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부모공동양육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들이 적용한 방법에 따라 교차타당도, 공인타당도를 실시하였다(Feinberg et al, 2012; McDaniel et al, 2017).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표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일관성과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공인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이 기존 공동양육 척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관련 변인인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공동양육을 잘 설명하고 있고 기존 공동양육 척도와 마찬가지로 양육 관련 변인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공인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타당도를 지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기존 공동양육 척도(CRS)와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개발한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요인과 문항은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 공동양육 척도(CRS)는 공동양육 훼손, 갈등 노출 등 부정적 요인과 문항이 있지만 개발한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부모공동양육에서의 긍정적인 양육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공동양육은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양육 행동과 별개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McHale(1995)의 연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공동양육 척도는 양육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예: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배우자와 말싸움을 한다.), 비난(예: 배우자는 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훼손(예: 배우자는 아이의 눈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McHale, 1997; Margolin, et al, 2001; Van Egeren & Hawkins,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표현과 관련한 문항 ‘나는 배우자의 양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예: 화난표정 짓기, 언성높이기 등)’는 제외되었고 ‘나(배우자)는 자녀가 배우자(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한다’ 등 긍정적 표현의 문항이 포함된 점에서 기존 척도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곧 한국의 어머니는 부모공동양육의 부정적 요소를 인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부모공동양육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공동양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며 한국 부모공동양육

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전체 .95의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가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하는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공동양육 관련 척도들은 대부분 상대 배우자를 중심에 두고 측정하는 것과 다르게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자신과 배우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통해 서로의 부모공동양육을 평가하면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자신의 양육과 상대방 양육에 대한 지각은 공동양육의 수준을 예측하게 한다는 Margolin 등(200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Teubert과 Pinguart(2011)의 연구와 같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도 자신과 상대 배우자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한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일차적으로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함께 조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부모공동양육 수준을 파악하여 한국 부모의 부모공동양육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표집과 관련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COVID-19로 인하여 풍부한 표본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충분하고 다양한 표본을 수집하여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특성과 경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는 확보하였으나 동일한 집단을 통한 검사-재검사의 안정성은 시도하지 않아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같은 대상을 통해 검사를 반복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척도의 일반화를 위하여 부부관계의 질과 다양한 영유아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공동양육은 실질적인 양육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공동양육을 규명함으로써 부모공동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 참여 증진에 해결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인식 차이와 다양한 부부 관계의 질, 부모-자녀 관계에서 보이는 아동 발달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자녀 양육 현장에서 부모가 협력적 양육 파트너로서 서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공동양육이 양성평등한 가정문화를 만드는 데 바람직한 양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9).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9(4), 175-194. <https://doi.org/10.18023/kjece.2019.39.4.007>

- 금주희, 양연숙 (2017). 부모의 부부공동양육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주의집중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문집*, 35(2), 213-238.
- 김나연 (2013). 노동권·부모권 관점에서 본 영국과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51-79
- 김문정 (2016).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8(5), 1329-1338. <https://doi.org/10.13000/JFMS E. 2016.28.5.1329>
- 김수진, 도현심 (2001). 부-모간 양육행동(Coparenting)의 관련 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가정과삶의질연구*, 19(5), 101-114.
- 김은수, 김혜순 (2019). 부모공동양육과 유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역할신념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1), 25-48. <https://doi.org/10.22155/JFECE.26.1.25.48>
- 김은하, 김지수 (2021.11). **코로나 19 이후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변화가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21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 발표 논문, 서울.
- 김재원, 남은영 (2018). 부부관계 유대감, 부부공동양육 및 유아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0(1), 97-116. <https://doi.org/10.22831/kap.2018.10.1.005>
- 김재희, 이희선, 박성혜 (201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와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직장-가정 간의 양방향적 전이: 기관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2), 193-213.
-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 (2014).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및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24.
- 김종훈 (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1), 61-74. <https://doi.org/10.23062/2018.01.6>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개정증보판)**. 한빛.
- 박선진, 강민주 (2020).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4(2), 3-27. <https://doi.org/10.5718/kcep.2020.14.2.3>
- 우종필 (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 육아정책연구소 (2020. 6). **‘같이육아’의 가치 함께 만들어요!**.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7&editMode=ADD&board\\_idx=35685&manage\\_idx=78&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memo2=1&search\\_type=title&search\\_text=&viewPage=1](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7&editMode=ADD&board_idx=35685&manage_idx=78&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memo2=1&search_type=title&search_text=&viewPage=1)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 이경선 (2017).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coparenting) 관련 변인: 결혼생활의 질과 정서적 특성. *유아교육연구*, 37(4), 421-434.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4.017>
- 이미나, 차기주, 정미라 (2016).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229-251. <https://doi.org/10.18205/kpa.2016.21.2.003>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영환, 이진숙, 이영순 (2009). 부모공동양육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육아정책연구**, 3(1), 61-86.
- 이은경, 이희선, 전선영 (2019). 아버지의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와 가사 양육 인식 및 행동, 자녀 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6(1), 157-176. <https://doi.org/10.15284/kjhd.2018.26.1.157>
- 이은수 (2020). 아버지 되어가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79-194.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2.179>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9.8). **아빠들이 말하는 육아경험과 의미 조사 결과 발표**. [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mode=view&bid=9&s\\_type=&s\\_keyword=&s\\_cate=&idx=28247&page=2](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mode=view&bid=9&s_type=&s_keyword=&s_cate=&idx=28247&page=2)에서 2020년 10월 14일 인출
- 장미연, 최미경 (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동양육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5), 567-580. <https://doi.org/10.6115/fer.2015.045>
- 전선영, 이희선 (2020). 부모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037-1062.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2.1037>
- 조규영, 김신경, 전효정 (2019).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공동양육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0(1), 67-83. <https://doi.org/10.21197/JCEI.10.1.4>
- 조숙인 (2021). 코로나 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포럼**, 68, 18-28.
- 조윤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3(2), 57-115. <https://doi.org/10.16935/ejss.2017.33.2.003>
- 진경선, 김고은 (2020). 후속 출산을 포기한 한 자녀 어머니들의 임신·출산 및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4), 1-29.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4.001>
- 하수경, 김원중 (2011). 아동의 기질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도와 아동행동발달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2(1), 203-218. <https://doi.org/10.15703/kjc.12.1.201103.203>
- 한영숙 (201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공격적·협동적 행동의 종단적 관계: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2), 75-86. <https://doi.org/10.5723/kjcs.2019.40.2.75>
- 한지현 (2018).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12(2), 83-105. <https://doi.org/10.5718/kcep.2018.12.2.83>
- Adler-Baeder, F., Garneau, C., Vaughn, B., McGill, J., Harcourt, K. T., Ketring, S., & Smith, T. (2018). The effects of mother participation in relationship education on coparenting, parenting, and child social competence: Modeling spillover effects for low-income minority preschool children. *Family process*, 57(1), 113-130. <https://doi.org/10.1111/famp.12267>
- Altenburger, L. E., Lang, S. N., Schoppe-Sullivan, S. J., Kamp Dush, C. M., & Johnson, S. (2017).

- Toddler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the effects of coparenting on social-emotion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1(2), 228-237. <https://doi.org/10.1177/0165025415620058>
- Beckmeyer, J. J., Ganong, L. H., Coleman, M., & Markham, M. S. (2017). Experiences with coparenting scale: A semantic differential measure of postdivorce coparenting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8(10), 1471-1490. <https://doi.org/10.1177/0192513X16634764>
- Belsky, J., Crnic, K., & Gable, S., (1995). The determinants of coparenting in families with toddler boys: Spousal differences and daily hassles. *Child Development*, 66(3), 629-64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894.x>
- Belsky, J., & Hsieh, K. H. (1998). Patterns of marital change during the early childhood years: Parent personality, coparenting, and division-of-labor correlat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511-528. <https://doi.org/10.1037/0893-3200.12.4.511>
- Carmines, E. G., McIver, J. P. (1981). Analyzing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In G. W. Bohrnstedt, & E. F. Borgatta (Eds.), *Social measurement: Current issues* (pp. 65-115). Sage Publications, Inc.
- Dyer, W. J., Fagan, J., Kaufman, R., Pearson, J., & Cabrera, N. (2018). Self-perceived coparenting of nonresident father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Family Process*, 57(4), 927-946. <https://doi.org/10.1111/famp.12331>
- Favez, N., Tissot, H., & Frascarolo, F. (2019). Parents' representations of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early coparenting interactions. *Journal of Family Studies*, 25(2), 199-213. <https://doi.org/10.1080/13229400.2016.1230511>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Feinberg, M. E., Brown, L. D., & Kan, M. L. (2012). A Multi-Domain Self-Report Measure of Co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2(1), 1-21. <https://doi.org/10.1080/15295192.2012.63887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802\\_8](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802_8)
- Konold, T. R., & Abidin, R. R. (2001). Parenting alliance: A multifactor perspective. *Assessment*, 8(1), 47-65. <https://doi.org/10.1177/107319110100800105>
- Kotila, L. E., Schoppe-Sullivan, S. J., & Kamp Dush, C. M. (2013). Time in parenting activities in dual-earner families 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62(5), 795-807. <https://doi.org/10.1111/fare.12037>

- Maccoby, E. E., Depner, C. E., & Mnookin, R. H. (1990). Coparenting in the second year after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141-155. <https://doi.org/10.2307/352846>
- Margolin, G., Gordis, E. B., & John, R. S. (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3-21. <https://doi.org/10.1037//0893-3200.15.1.3>
- McConnell, M. C., & Kerig, P. K. (2002). Assessing coparenting in families of school-age children: Validation of the Coparenting and Family Rating System.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 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4*(1), 44-58. <https://doi.org/10.1037/h0087154>
- McDaniel, B. T., Teti, D. M., Feinberg, M. E. (2017). Assessing Coparenting Relationships in Daily Life: The Daily Coparenting Scale (D-Cop).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9), 2396-2411. <https://doi.org/10.1007/s10826-017-0794-5>
- McHale, J. P.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85-996. <https://doi.org/10.1037/0012-1649.31.6.985>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7.00183.x>
- Merenda, P. F. (1997). A guide to the proper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conduct and reporting of research: Pitfalls to avoid.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3), 156-164. <https://doi.org/10.1080/07481756.1997.12068936>
- McHale, J. P., Kuersten-Hogan, R., Lauretti, A., & Rasmussen, J. L. (2000). Parental reports of coparenting and observed co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toddler peri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2), 220-236. <https://doi.org/10.1037/0893-3200.14.2.220>
- Merrifield, K. A. (2009). *Marital and coparenting qualities: Association with parenting cognitions*.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University.
- Reid, C. A., Roberts, L. D., Roberts, C. M., & Piek, J. P. (2015). Towards a model of contemporary parenting: The parenting behaviour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PloS one*, *10*(6), e011417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14179>
- Shaffer, D. R., & Kipp,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9th ed.). Cengage Learning.
- Stright, A. D., & Bales, S. S. (2003). Coparenting quality: Contributions of child and parent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 *52*(3), 232-240.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3.00232.x>
- eubert, D., & PiTnquart, M. (2011). The coparenting inventory for parents and adolescents(CI-PA): Reliability and valid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7*(3), 206-215.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068>
- Umemura, T., Christopher, C., Mann, T., Jacobvitz, D., & Hazen, N. (2015). Coparenting problems with toddlers predict children's symptoms of psychological problems at age 7.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6(6), 981-996. <https://doi.org/10.1007/s10578-015-0536-0>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https://doi.org/10.1023/B:JADE.0000035625.74672.0b>

논문투고: 22.02.23

수정원고접수: 22.05.25

최종게재결정: 22.06.10